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6월 7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 33:10-12)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한분 성령님이 우리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12장 다같이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5:21-26** **인도자**

-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설 교 **“예물보다 먼저 화목”**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27장** **다같이**

1.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2.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3.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라
<후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네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출입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운영중입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예물보다 먼저 화목”

(마태복음 5:21-26)

앞 단락(마 5:17-20)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탁월성’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은 의’에 도달하기 위한 규범을 6가지로 제시하십니다(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첫 번째는 십계명 중 6계명인 ‘살인 금지’ 규정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21-22절).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에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만큼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십계명을 협소하고 피상적으로 해석해왔으므로 왜곡해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당시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존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구전, 전통, 가르침 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정수를 보게 하시며, 부정적인 대신 긍정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행동 이전에 마음임을 천명하십니다.

살인은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22절).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그 감정을 표출할 때, 욕설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주의 말을 할 때, 이미 살인은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살인 행위가 됩니다. “라가”란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살 가치가 없는 놈이란 히브리 말로, 그다지 큰 욕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형벌은 중대합니다. 17세기 영국 선교사 토마스 왓슨은 “열두 가지 살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손으로, 마음으로, 혀로, 펜으로, 음모와 권모술수로, 독약으로, 마술로, 고의적 살인으로, 권력으로, 타인을 죽이는 데 동의함으로, 무자비함으로, 죽일 자를 죽이지 않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댓글이나 악플로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살인행위가 됩니다. 죄도 자라듯 형벌도 심화됩니다. 분을 발하게 되면 심판받고, 라가라고 욕하면 공회에 붙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축복과 저주, 구원과 정죄가 다 말에 들어 있습니다. 지옥은 말로 열리고 말로 닫힙니다. 현재 미국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사용입니다. 항의하는 시위대는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과도하고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살인행위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런 살인적인 분노를 품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물을 드리려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른 형제가 자기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게 하신다면, 즉시 예배를 멈추고 그 형제를 찾아가 먼저 화해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전제 조건은 형제간의 화목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살의를 품고 예배드릴 때 주님은 받아

들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제사자를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배 이전의 삶이 결정합니다.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살이를 할 때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려 할 때, 재판관에 도착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불화는 자기에겐 고통과 비용을 막대하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화목을 위한 일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했듯이 형제자매 간에도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인 계명이 본래 의도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